KoreaAnabaptistJournal
한국아나뱁티스트저널

● 발행처:한국아나뱁티스트펠로우십(Korea Anabaptist Fellowship) ● 편집장:박성열 ● 편집위원:김복기 배용하 ● 발행일:2012. 11. 17 창간호 ● 주소:충남 논산시 가야곡면 양촌리 520 ● 전화:070-4027-2200 ● www.wkaf.net ● 온라인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홈페이지에 신청해주세요.

창간호를 발간하며

한국 아나뱁티스트들의 여정에 활력이 되길...

샬롬!

박성열
(편집장)

주님의 평화와 은혜가 이 글을 읽는 모든 분의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 아나뱁티스트 저널을 창간하는 큰 기쁨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되어 감사합니다.

제가 KAC를 통해 아나뱁티스트를 만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간 캐나다와 한국에서 여러 모양으로 북미의 메노나이트 교회와 한국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신실하게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믿음의 동료를 보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믿음의 여정은 홀로 떠날 수 없는 여정임을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을 맞이하여 함께 예루살렘으로 여정을 떠나면서 시편을 노래했던 것처럼 한인 아나뱁티스트라는 한 무리 속에 거하는 저희도 주님을 찬양하며 이 여정을 함께해야 함을 더욱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한국 아나뱁티스트들의 여정에 새로운 활력이 되고자 한국 아나뱁티스트 저널을 창간하게 되었습니다. 저널이라는 말이 주는 학문적 경향성이 이 저널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교제와 연합, 그리고 정체성 고양에 방해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나뱁티스트적 전통으로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모든 사람과 교회가 이 작은 저널을 통해 구체적이고, 분명한 색깔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의 길을 나누어 다른 전통 속에서 주님을 따르는 분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격려, 질책과 사랑을 부탁하며 수많은 나눔과 대화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공고히 할 수 있기를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21세기의 아나뱁티스트의 의의와 방향

1. 들어가기

남귀식
은혜와평화교회

한국땅에 기독교가 자리를 잡기 시작한 지 120년이 넘어갑니다. 한 세기가 넘어가면서 한국 교회의 많은 비판과 함께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교회가 대형화되어가고 그 가운데 교회의 본질이 빛을 잃어가고 사회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 가운데 성령의 역사는 계속되어 가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으며 작은 교회들이 성경에서 드러나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 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바로 그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본질을 찾아가기 위한 여정을 떠나면서 교회사의 창을 열 때 만나게 되는 것이 바로 16세기 아나뱁티스트들입니다. 16세기 아나뱁티스트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상을 찾아 교회 공동체를 이루며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냈기 때문에 교회의 본질 회복을 위한 여행자들에게는 자연적인 만남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나뱁티스트의 삶과 교회 공동체의 회복을 위한 작은 움직임들이 한국교회 가운데 일어나는 것은 한국교회의 희망의 싹이 트고 있다는 생각을 감히 하게 됩니다. 그래서 21세기 한국 아나뱁티스트의 의의와 방향을 함께 생각해 보는 것은 참으로 소중한 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한국 아나뱁트스트들의 모임이 생기고 그 가운데 아나뱁티스트들의 생각과 고민 그리고 신학과 삶을 나누는 저널이 발행되게 된다는 것은 행복하고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21세기 아나뱁티스트의 의의와 방향을 생각해 보는 것은 뜻 깊은 일이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나뱁티스트의 전통 중의 하나인 메노나이트 교회인 은혜와평화교회가 서울에서 시작된 지 6년이 되어갑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것 같아,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이 많습니다. 평화의 걸음을 걸으며 교회 공동체의 본질을 회복해 보고자 노력하지만, 한계를 경험합니다. 사회와 국가에서 벌어지는 불의와 폭력과 악에 대해 그리스도의 평화를 외치며 작은 몸짓을 하지만 꿈틀거리는 지렁이의 모습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걸음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나면 분명히 한국의 교회와 기독교는 변화가 일어나리라는 확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확신 가운데 부족한 걸음을 시작한 저희 교회의 사역을 비추어

보면서 21세기 한국 아나뱁티스트의 의의와 방향에 대해 저의 생각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2010년 여름 한국아나뱁티스트펠로우십을 위한 지역 리더 파송기도

2. 21세기의 아나뱁티스트의 의의

먼저 21세기에 있어서 아나뱁티스트의 의의는 참으로 크다고 생각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맞이하여 그리스도인들조차 진정성을 잃어 가고 있습니다. 진정성을 잃어 간다란 말은 본질을 잃어 간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질, 교회로서의 본질, 주님을 따르는 무리로서의 본질 즉 공동체성의 본질을 잃어가는 세대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본질의 상실은 세대를 거쳐 계속되어 오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본질의 회복을 이루는 것이 아나뱁티스트의 의의라고 생각됩니다.

본질의 회복을 이루는 것이 아나뱁티스트의 의의라고 생각

그리스도인의 본질 회복은 바로 주님처럼 사는 것의 회복입니다. 이것은 정체성의 회복이라고 봅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그 삶이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아서 크리스천이라고 불렸습니다. 자신들이 붙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붙인 것입니다. 오늘날 주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너무 예수님을 닮아서 그 예수님께 관심을 두도록 하고 있나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가난한 이웃과 고아를 돌보며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이기적이고 욕심쟁이이며 부와 권력과 돈과 영예에 더 집착하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떨쳐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주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작금의 상태에서 아나뱁티스트들의 삶 즉 처음의 그리스도인들이 살았던 삶으로 돌아가 그렇게 자신의 이익과 욕심을 포기하면서 주님만을 따랐던 삶이 필요합니다. 주님처럼 주위의 형제 · 자매들을 돌보며 주님의 삶과 사역이 자신의 삶의 중심이고 생각의 중심이었던 그들의 삶의 내용이 저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내용이 되어야 한다는 면에서 그 의의는 참으로 크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에서 더 큰 의의는 주님처럼 이웃의 잘못을 용서하고 용납하며 화목하고 평화하며 함께 더불어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뒤에서 말하는 주님의 자녀의 공동체적 삶에서 더 자세히 다루어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본질 회복 중의 하나는 바로 제자도의 회복입니다. 제자는 선생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선생님을 따르는 최고의 모습은 선생님을 닮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본질 회복은 바로 주님처럼 사는 것의 회복, 제자도의 회복, 교회로서의 본질의 회복, 공동체성의 회복입니다

행동이나 말씨나 생각이나 표현에서 주님을 닮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은 우리에게 너무 이상적이고 추상적인 것처럼 여겨집니다. 이론적이고 종교적인 영성으로만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제자도인 자기를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너무 멀게 느껴지고 시대에 맞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경에서 가르치시고 말씀하신 대로 사셨던 주님처럼 그렇게 주님을 닮아 가며 살았던 사람들이 16세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나뱁티스트가 주는 21세기의 또 하나의 의의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살 수 있다는 용기와 희망입니다. 왜냐하면, 500년의 역사 가운데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제자도의 본질의 회복이 가능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참 행복하고 소망을 더해 줍니다.

세 번째 교회로서의 본질의 회복입니다.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작정하고 주님을 주로 고백하고 주님을 삶의 중심에 모신 사람들이 모인 무리입니다. 이 사회의 어떤 이익 단체들의 모임이 아니라 주님처럼 살고자 자신의 모든 이익과 명예와 욕심을 버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이러한 무리가 함께 모인 교회가 있는 곳은 그 지역이 바뀌어 가게 됩니다. 주의 제자들로 모였기에 더 큰 힘을 발휘하여 자연스럽게 폭력이 사라지게 되고, 파괴와 전쟁이 그쳐지게 됩니다. 미움과 다툼, 시기와 질투가 있던 곳이 용서와 회복과 돌봄과 사랑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일은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놓여야하고 이러한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주님처럼 살아갈 때 겪게 되는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함께 격려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격려를 그치지 않는 곳이 바로 교회공동체의 본질입니다. 21세기 아나뱁티스트의 의의는 바로 이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처럼 내 것을 내 것이라 여기지 않고 내어놓아 필요한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 모습이 성경의 한 과거의 역사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16세기에 그렇게 실제로 살았다는 사람들이 있었고 지금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21세기 아나뱁티스트의 의의입니다.

네 번째로의 본질의 회복은 함께 더불어 사는 공동체성의 회복입니다. 공동체성의 회복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우리가 사는 지금 여기에서 경험하고 사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삶의 내용을 공유하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2010년 가을 KAF를 위한 첫 모임이 춘천에서 시작되었다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사는 무리로서 서로 섬기며 영향을 준다는 것은 매일 주님을 따르고자 수고하며 애쓰는 삶의 연습을 통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적 삶은 주님을 닮아가는 삶의 연습장이라고 생각합니다. – 그러나 이러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의 연습이 단지 이 한정된 공동체에서만 일어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성의 회복은 바로 내가 소유하는 나의 영역을 형제자매들과 나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감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역이 지체들의 영역과 함께하는 공통된 분모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공동체성은 더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이익과 욕심을 포기하고 주님의 더 닮아가면 갈수록 이러한 공동체적 영역은 더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공동체성이 주님을 따르는 것과 비례한다는 말입니다. 주님의 가르침과 말씀에 대한 해석이 달라서 공동체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른다는 것 즉 주님을 닮아 간다는 것은 주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렸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냥 주님처럼 사는 삶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비우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것 그것입니다.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섬기러 오신 주님의 모습을 닮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의 삶의 공동체는 더 많아집니다. 내 것이 내 것이 아니라 나누어 주고 함께하는 것이 많아

교회의 진정성을 찾다 보면 자연스럽게 만나지는 것이
바로 이 아나뱁티스트들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한국교회의 대안이
바로 아나뱁티스트 교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21세기 아나뱁티스트의 방향은
진정성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모이고 이들을 통해
화해와 용서의 실천이 일어나 평화와 정의가 흘러가도록 해야하며
진정한 제자도에 기초한 그리스도 중심의 예배하는 삶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지면 많아질수록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됩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초대교회의 특별한 사람들만의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라, 그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살았던 사람들이 16세기에 있었으며, 지금도 살아 있으며 이 한국 땅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21세기 아나뱁티스트를 생각하는 의의입니다.

3. 21세기 한국 아나뱁티스트의 방향

요즘 한국의 이곳저곳에서 아나뱁티즘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란 무엇인가를 공부하면서 교회 역사 혹은 기독교 역사를 공부하다가 만나는 것이 바로 16세기의 아나뱁티스트들입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깊이 생각해 보고 그려보다가 보면 자연스럽게 만나는 것이 바로 16세기의 아나뱁티스트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의 교회를 걱정하고 교회의 진정성을 찾다 보면 자연스럽게 만나지는 것이 바로 이 아나뱁티스트들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한국교회의 대안이 바로 아나뱁티스트 교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서 조심스럽게 말하고 싶습니다. 아나뱁티스트들은 교회를 개혁하기 위해 모인 운동체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16세기 당시 성경을 단지 라틴어 교육을 받고 사제가 된 사람들이 읽고 해석하는 것으로만 여겨졌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그 사제들 가운데 성경을 공부하다 보니 국가와 결탁하여 사제들의 이익과 권위 그리고 명예를 위해 성경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한 예로 면죄부를 판매한다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돌아가서 성경이 말하는 대로 살고 성경대로 주님을 따르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아나뱁티스트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살던 시대는 교회가 국가와 결탁하여 국가의 권력과 이익을 나누고 함께하는 시대였습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성경이 말하는 대로 살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믿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삶은 자연스럽게 당시의 국가교회와 충돌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살면 자연스럽게 세상의 가치와 방법은 충돌을 일으키게 마련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즉 어떤 교회를 갱신하기 위해 운동을 담아내며 소리를 내고 목소리를 높였던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 노력하다 보니 국가 권력과 함께 결탁한 교회의 지도자들과 그

무리로부터 고통을 당하고 핍박을 받으며 순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진정성을 갖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핍박은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진정성을 갖고 주님의 말씀과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자연스럽게 아나뱁티스트 교회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서로 긴밀하게 교제하고 자신의 것을 나누고 함께 살아가게 된 것이 아나뱁티스트 교회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한국아나뱁티스트펠로우십을 통해 21세기 한국교회에 유익이 있기를..(KAF의 홈페이지 www.wkaf.net)

이러한 맥락에서 저는 21세의 한국의 아나뱁티스트 방향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진정성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진실히 따르며 섬기며 닮아가는 자들이 자연스럽게 모여지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은 삶과 연관이 깊습니다. 삶에서 주님을 따르고 닮아갈 때 그리스도인들의 향기가 나고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이 회복될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본질의 이름을 찾아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희석된 것을 청결하게 걸러내려면 그만큼의 고통과 인내가 필요할 것입니다. 고통과 인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또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단번에 어떤 운동을 해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단체나 집단의 운동성과는 달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루어 내야 하는 것은 삶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이나 표어나 어떤 운동성에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삶으로서의 변화를 이룬다는 것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사는 삶의 현장이 선교의 현장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 선교라는 단어가 잘못 인식되어 있습니다. 문화나 환경이나 지리적 위치가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란 인식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선교는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지금 이곳에서 내가 살아가는 모습 때문에 보이는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선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며 missional life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진정성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삶을 나누는 교제가 일어나게 하는 것이 21기 한국의 아나뱁티스트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깊이 있는

교제가 형성되어 아나뱁티스트-메노나이트 사람들이 모이면 서로 눈빛만 봐도 서로 마음을 알 수 있을 정도로 말입니다. 초대의 쿰란 공동체처럼 물고기 모양을 그리거나 손으로 십자가를 그리기만 해도 서로 마음을 알고 함께 형제, 자매가 되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둘째로 화해와 용서의 실천이 일어나고 평화와 정의가 흘러가도록 살아내는 일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어디에서 필요합니까? 바로 공동체에서 필요합니다. 공동체라는 말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공동체를 건전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요소는 바로 화해와 용서에 기초를 둔 사랑과 정의에 기초가 평화입니다. 이러한 요소는 이론이 아닙니다.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고, 말하는 방법이 다르고, 사물을 보는 눈이 다르고, 특히 나와 삶의 가치가 다른 사람들이 모여 주님을 따를 때 우리가 범하기 쉬운 것은 너는 왜 나와 다르냐는 인식입니다. 나와 다름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와 같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릅니다. 그 다름이 주님 앞에서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름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함께 공유하기 위한 시작될 때 용서가 일어나고 화해가 생깁니다. 용서가 생기고 화해가 생길 때 그곳에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던 샬롬 즉 평화가 일어납니다. 이 평화는 다른 사

한인 아나뱁티스트는 전세계에 흩어져 있으며, 국내도 자생적 아나뱁티스트 신앙을 가진 많은 형제자매들이 있다.(사진은 2010년 KAF를 준비하기 위해 캐나다 트리니티메노나이트교회에서 모임 후의 기념)

람들을 나와 같이 인정해 주고 함께 해 주는 공의가 실행될 때 가능합니다. 내가 누릴 것을 누리며 나눌 것을 나누지 않고 다른 사람과 나누지 않고 불평등한 상태에서의 평화는 나만 누리는 평화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평화는 이웃과 함께하는 평화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저는 이웃이라고 할 때 하나님과 창조 세계를 다 포함한 이웃입니다. 내가 아닌 다른 모든 것은 다 이웃입니다. 이 이웃과 평화할 때 진정한 평화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기초위에 세워진 교회 공동체가 곳곳에 많이 생겨나는 것을 상상해 봅니다. 그리고 메노나이트 평화 센터가 생기고, 형제, 자매들이 함께 묵고 지낼 수 있는 메노 하우스가 곳곳에 생겨나고, 화해 평화를 위한 메노 정의센터와 메노 아카데미 센터가 생겨나는 것을 꿈꾸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진정한 제자도에 기초한 그리스도중심의 예배하는 삶이 회복되어 가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을 하자면 삶의 예배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일상의 삶에서 경험하고 함께했던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 가운데서 함께 나누어지고 경험되어지는 예배입니다. 그냥 일주일 살았던 것이 교회라는 한 장소에서 거룩한 영성에 근거한 위로의 예배로만 그치거나 지쳤던 몸이 회복되고 충전되는 일상의 삶을 잠시 뒤로 하고 소위 말해 재충전의 예배로 드려지는 예배가 다가 되지 않는 예배 말입니다. 일상의 삶이 지체들과 함께 예배 가운데 나누어지고 그래서 더 죄가 드러나는 예배, 그리고 지체들이 서로서로 고통과 아픔에 동참하고, 그들의 기쁨이 나누어짐으로 인해 그 안에서 격려가 일어나는 삶의 예배가 있는 missional worship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가운데 경험된 것이 다시 삶으로 이어져 가는 missional life가 일어나는 예배가 되는 교회 공동체가 많이 생기는 것이 21세기의 아나뱁티스트의 방향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기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터라는 사실입니다. 아나뱁티스트들이 찾아냈던 것은 그들의 삶, 신앙, 공동체, 평화 그리고 일상의 모든 것의 기초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었다는 것입니다. 21세기 아나뱁티스트들의 방향은 우리 주 예수그리스도 그분의 삶과 가르침,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아나뱁티스트, 하나님 나라의 길을 걸는 사람들

아나뱁티스트 운동의 역사적 조명

김경중 총무
(한국아나뱁티스트센터)

모든 사람이 유아세례를 통해 국가 교회의 일원이 되었던 중세시대 관점에 의하면 세상은 오직 그리스도인Christian과 이방인Heathen 나라로 구분되고 있었다. 당시 유럽의 기독교 국가에서는 거의 모든 시민이 나면서부터 유아세례를 받았으므로 사람들은 국가 교회의 성례전에 참여하기만 하면 성경의 가르침을 몰라도, 거듭남의 비밀이나 회심을 경험하지 않았어도 교인됨의 자격을 유지하는데 별문제가 없었다. 모든 사람은 콘스탄틴 황제 이후 등장했던 기독교국가체제Christendom, 즉 대중을 위한 국가 교회의 틀 안에서 살고 있었다. 16세기 아나뱁티스트 신자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 길을 가고자 했던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루터와 츠빙글리가 주도했던 기독교국가체제 안에서의 개혁reformation이 아니라 국가 교회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 한계를 극복하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통치를 받는 교회를 회복restoration하길 원했다.

아나뱁티스트 신앙운동은 1525년 스위스의 개혁자 츠빙글리의 제자들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들은 대중을 위한 국가교회에 대해서만 알고 있었던 츠빙글리의 개혁 방법과는

달리 교회 개혁을 완전히 새롭게 시도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기독교국가체제 아래서 국가의 강요나 법에 지배받지 않는 신자들로 구성된 교회를 원했다. 이것이 바로 16세기 아나뱁티스트 신앙운동이 처음 추구했던 목표였다. 그래서 그들은 누구나가 유아세례를 통해 자동으로 교회 멤버십을 갖고 살아갔던 국가교회의 요구와는 달리 믿음과 행함이 일치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며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열망하는 사람들의 교제를 추구하였다.

16세기 아나뱁티스트들은 기독교국가체제라는 국가교회의 틀을 극복하고 예수그리스도의 온전한 통치를 받는 교회를 회복하길 원했다

그들은 당시 루터와 츠빙글리를 비롯한 종교 개혁자들이 국가교회 체제하에서 온건한 태도를 보이는 것을 비판했으며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뿐 아니라 그분의 삶을 따르는 철저한 제자도에서 시작한다고 강조하였다. 세례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총의 언약과 그리스도와의 진정한 연합의 의미가 있으므로 유아에게 베풀 것이 아니라 분별력 있는 나이에 도달한 사람을 위해 보류되어야 하며 신자들의 개인적인 신앙 고백에 근거해서 베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16세기 당시 세례는 시민권과 결부된 중요한 항목이었다. 세례를 받지 않은 유아는 국가교회 체제하에서 주민 등록을 할 수가 없었고, 따라서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명목을 마련해주지 않는 행위였기 때문에 국가 교회의 입장에서 아나뱁티스트 신자들의 행위는 국가 교회의 법을 어기는 일에 해당하였다.

츠빙글리의 제자들은 교회개혁의 방향과 속도가 국가의 견해와는 관계없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를 중심으로 주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츠빙글리는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 마침내 1525년 1월 21일 스위스 형제단은 츠빙글리를 중심으로 한 국가교회와의 완전한 결별을 선언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급진적인 주장에 대해 당시의 국가교회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반역이요 이단자들로서 처벌할 것을 결정하기에 이른다. 결국, 아나뱁티스트 신자들이 주장한 철저한 제자도와 사랑의 윤리평화, 공동체의 비전은 무시되었고 오히려 가톨릭과 개신교 모두로부터 정죄받아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철저히 무시당한 채 체포, 재산 몰수, 고문, 처형으로까지 이어지는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일을 겪은 사람들이다. 그들은 결국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찾아 고향 산천, 심지어 자신들이 태어난 국가를 버리고 끊임없는 이주를 거듭하며 이 땅에서의 나그네로서 순례 길을 사는 사람들이 되었다. 아나뱁티스트라는 말은 "재세례를 주는 놈들rebaptiser"이라는 경멸조의 별명이었으며 16세기 당시는 로마 가톨릭, 루터파, 캘빈파에 속하지 않았던 거의 모든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 되기까지도 했다.

아나뱁티스트 운동에 대한 평가

헤롤드 벤더Herold Bendor에 의하면 아나뱁티스트 운동 초기 적어도 18개의 아나뱁티스트 그룹들이 존재했다고 한다. 토마스 뮌쩌나 뮌스터 사건을 일으킨 사람들도 아나뱁티스트로 불린 사람 중 하나이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뜻을 수행한다고 하면서도 폭력적이었고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 신구약 성경을 혼합해서 해석하는 오류를 범하였다. 아나뱁티스트 운동의 시작된 지 불과 25년이 지나는 동안 폭력으로 세상을 바로 잡으려고 했던 사람들은 모두 소멸했고 오직 세 개의 그룹만이 생존했는데 그들이 바로 스위스 형제단, 메노나이트, 후터라이트 사람들이다. 뮌스터의 아나뱁티스들과 평화로운 아나뱁티스들의 공통점이 있었다면 단 한 가지 그것은 그들이 성인세례를 주었다는 것뿐이다. 뮌스터 사건을 일으킨 사람들은 진정한 아나뱁티스트들이 실천한 사랑과 비폭력, 자발적인 신앙, 교회와 국가의 분리, 윤리적 삶의 기준 향상, 제자도 등에 대해서는 하나도 지키지 않았다.

초기 아나뱁티스트 운동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거룩한 미치광이', '위험한 이단자',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반란 세력들'로 간주하였다

그럼에도, 아나뱁티스트 운동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거룩한 미치광이', '위험한 이단자',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반란 세력들'로 간주하였다. 당시의 사회와 통치자들은 평화로운 아나뱁티스트 신자들을 뮌스터의 광신자들과 구분해서 보지 않은 것이다. 헤롤드 벤더같은 학자들은 뮌쩌와 같이 무력사용을 정당화한 행위는 그리스도의 비폭력과 사랑의 윤리를 추구했던 당시의 평화로운 아나뱁티스트 신자들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아나뱁티스트 신앙운동의 정통성에 전혀 못 미치는 비극적인 사건으로 간주하였다. 아나뱁티스트 운동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로마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 국가 교회의 권력을 손에 쥔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아나뱁티스트 신앙운동이 기독교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사건으로 평가되지만 아나뱁티스트란 이름으로 비난을 받았던 사람들의 역사의식과 원칙에 의하면 아나뱁티스트 신앙운동이야말로 인류 역사에서 진리를 좇아 살고자 했던 믿음의 싸움 중에서 가장 의미심장하고 중요한 운동이었다." 헤롤드 벤더, 『재세례신앙의 비전』(KAP 역간), 16쪽

만일 우리가 아나뱁티스트 신앙이 추구했던 비전을 재발견하고 그들의 거룩한 유산

을 한국 교회의 갱신과 회복의 밑거름으로 삼기 원한다면 그들의 신앙은 우리에게 어떠한 도움과 도전을 될 수 있을까? 지금부터는 아나뱁티스트 신앙이 한국교회에 긍정적으로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아나뱁티스트 관점에 의하면 기독교 신앙의 핵심 주제는 크게 제자도, 공동체, 평화로 요약할 수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한국 그리스도인의 신앙, 삶, 사역의 중심에 각각 적용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한국에서의 아나뱁티스트 신앙 적용

1) 제자도의 실천에 대하여

루터와 츠빙글리가 추구했던 교회는 가톨릭과 다르지 않았는데 이는 그들이 거룩한 삶을 신앙인의 필수 요소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가톨릭과 개신교의 기본적 차이가 있었다면 그것은 신학적/교리적인 문제였지 실천적인 문제는 아니었다. 루터와 츠빙글리 역시 교인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는 말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절대적으로 요구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아나뱁티스트에게 가장 중요했던 말은 개혁가들이 주장했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대한 '믿음' 뿐 아니라 '따름' 이었다. 그리스도인이 치러야 할 중요한 시험이 있다면 그것은 제자도였다. 아나뱁티스트는 삶 전체에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상태로 단지 지적 교리적 신앙이나 주관적인 경험을 통해서 회심 거룩함 사랑을 만들어 내는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는다." 헤롤드 벤더, 『재세례신앙의 비전』(KAP 역간), 70쪽

제자도는 교회 구성원의 자질을 결정짓는 핵심이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는 상태에서 신경을 암송하거나 또는 유아세례를 통해서 부여받은 교인됨의 자격만으로는 정식으로 교회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유아세례는 교인들의 비자발적, 비인격적인 참여를 반영할 뿐이다. 아나뱁티스트가 신자의 세례를 주장한 이유는 신약성경에 따른 양심적 회개와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서의 삶이 수반되는 문제였기 때문이다. 유아들은 너무 어려서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의 결정을 할 수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한국 교회의 멤버십 개념이나 제도는 새롭게 바뀔 필요가 있다고 본다. 교회의 정식 구성원멤버은 유아세례를 받았거나 또는 새로 나온 사람들이 등록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삶의 변화회심가 일어나야 가능한 것이다. 한국 교회가 양적으로 성장해서 수많은 신학생과 목회자들을 배출하고 세계 곳곳에 선교사

그리스도를 날마다 따르지 않고서는
누구도 그분을 제대로 안다고 할 수 없다.
한스 뎅크(Hans Denck), 1495-1527

를 파송한 것이 한국 교회의 영적 성장과 그리스도인 삶의 도덕적인 수준에 향상을 가져오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제자도의 결여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교인됨/멤버십의 자격을 제자도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 제자도를 수반하지 않는 교회의 멤버십은 의미가 없다. 한국 교회는 멤버십을 제자도와 관계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할 것인가?

"그리스도를 날마다 따르지 않고서는 누구도 그분을 제대로 안다고 할 수 없다."한스 뎅크(Hans Denck), 1495-1527

아나뱁티스트 교회론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몸"을 인식하고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따라 서로 사랑하고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데 있다. 지체들이 (소수라 할지라도)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아나뱁티스트는 자신들이 믿음을 드러내지 않고 숨기면서 살면 핍박을 받지 않고 살 수 있다고도 보았다. 그러나 그것이 유혹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그들이 자신들의 급진적인 입장을 포기하지 않은 것 자체가 그들에겐 큰 유혹이었다. 왜 그랬을까? 그것은 신약성경의 가르침을 지키는 것이 오직 보이는 상태에서 만나서 서로 계명을 지키고, 한 몸 된 지체로서 교제하면 나아갈 때만 가능하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아나뱁티스트는 교회에 가지 않았다, 그들 자체가 교회였다.

2) 공동체의 리더십 선출방법에 대하여…

1527년 쉴라이타임 신앙고백에 보면 회중의 규율Congregational order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만일 어떤 목자가 끌려갔거나 십자가의 도를 실천하다 죽은 경우라면 교회는 목자를 잃은 슬픔을 애도하지만, 하나님의 어린 양들이 목자 없이 떠돌다가 멸절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양 때들의 생명을 보전하기 위해서라도 그 즉시 다른 목자를 세워야 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누가 차기 리더목자를 선출하는가? 아나뱁티스트는 운동 초기부터 박해를 받았고 초기 지도자들은 거의 다 순교했다. 박해로 말미암아 목자를 잃은 교인들은 자신들의 지도자를 스스로 선출해야만 했다. 오늘날 우리는 핍박이 없는 시대를 살고 있기에 이러한 선출절차가 불필요할 것이다. 그럼에도, 아나뱁티스트 교회가 리더십을 회중 가운데서 선출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때의 기준은 디모데전서 3장에 따라 지도자의 자질이 검증된 사람이어야 했으며 양 때들을 위하여 언제라도 자기 목숨을 내 놓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아나뱁티스트 교회의 지도자는 언제라도 자신이 먼저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교인들은 그

가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로서 양 때들을 버리지 않고 헌신한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 또한, 지도자의 도덕성과 사람됨에 대한 평가는 주변 이웃을 통해서도 좋아야 했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의 리더 선출 방법과는 매우 다르다. 한국 교회의 목회자가 되려면 전문적인 신학 수업을 받아야 하고 신학교/신대원을 나오고 나서 교단 차원에서의 안수를 받는 것이 통례이다. 이에 비해 아나뱁티스트 리더십 선출 방법은 철저하게 회중으로부터 그 권위를 인정받은 경우에만 가능하다. 그래야, 목자와 양 때들은 강한 유대와 상호 책임을 느낄 수 있다. 오늘날 북미의 아나뱁티스트 교회에는 신학교도 있고 안수 제도가 있으며 그러한 절차를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아나뱁티스트 교회의 목사가 되려고 신학교나 신대원을 나와서 교단의 안수를 받아야 하는 법은 없다. 그보다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회중의 부르심에 대한 개인의 확신이 중요하다. 목사는 직업도 아니고 타이틀도 아니다. 그것은 소명에 대한 직임일 뿐이다. 목사가 되어야만 사역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신학교를 나와야만 목회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런 제도는 교회가 제도화되면서 생긴 부산물이지 본질적인 것은 아니었다. 사역은 모든 교인이 자기 은사에 맞게 어디서도 할 수 있다. 특별히 목회자가 되는 길만이 사역자가 되는 길은 아니다. 대부분의 아나뱁티스트 목사는 목사로서의 역할도 하지만 자기 고유의 직업을 갖고 있다. 현대의 메노나이트 교회의 운영방식 중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도 있다. "목회자가 교회에서 사임하거나 은퇴할 때는 같은 교회에 머물러서는 절대 안 된다. 사임하거나 은퇴한 사람은 전에 섬겼던 교회의 교인들이나 후임 목회자와의 관계에서 갈등이 있어서는 안 되고 어떠한 형태로든 갈등을 만드는 구조로 남아 있어서도 안 된다."

3) 공동체적 성경해석에 대하여…

루터는 만인 제사장설을 주장했지만 아나뱁티스트는 이를 완벽히 실천한 사람들이었다. 이것은 아나뱁티스트 교회의 성경해석이 회중 가운데 공동체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로 잘 알 수 있다.

아나뱁티스트는 신구약 성경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하되, 성령을 받은 회중들과 함께 해석했다. 아무리 무식한 농민이라 할지라도 성령을 받은 사람이 성령을 소유하지 못한 신학자들보다 성경해석에서 뛰어났다는 사실은 학문적으로 배우지는 못했지만 감옥이나 법정에서 담대하게 증언했던 수많은 아나뱁티스트 신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알 수 있다. 루터는 오직 믿음, 오직 성경…이라는 모토를 내 걸었지

루터는 오직 믿음, 오직 성경…이라는 모토를 내 걸었지만, 아나뱁티스트는 오직 믿음, 오직 성경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함께 강조했다

만 아나뱁티스트는 오직 믿음, 오직 성경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함께 강조했다. 성경을 해석할 때도 성령이 함께하셔야 가능하다고 여겼고, 원수 사랑을 실천한 대가로 죽어갔던 사람들의 초인적인 자비와 인내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설명할 길이 없다. 아나뱁티스트 신자들이 그리스도를 따른 제자도의 삶의 대가가 수천 명의 순교자의 배출을 가져왔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없었다면 도저히 불가능한 이야기이다.

아나뱁티스트 성경해석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순종의 해석학이다. 아무리 성경해석을 잘했다 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실천하거나 순종하지 않는다면 아나뱁티스트는 그런 사람들의 해석을 인정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했다면 순종으로 말미암은 삶의 변화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대한 설교자와 듣는 사람들의 순종이 없는 상태라면 아무리 좋은 명설교나 해석도 의미 없다.

한국 교회의 목회자들이 아나뱁티스트의 공동체적 성경해석을 인정한다면 교인들로 하여금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게 하고 또 회중 앞에서 자유롭게 나눌 기회를 제공하고 격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목회자의 임무는 각각의 지체들이 어떠한 은사가 있는지를 발견하고 자신들의 은사를 사용하여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장려하는 일이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엡 4:11

4) 평화를 가져오는 사랑의 실천에 대하여….

아나뱁티스트의 평화와 화해에 대한 입장은 처음부터 분명했다. 아나뱁티스트 신자들은 뮌스터에서의 비극처럼 이 땅에 세속적인 나라를 세우려 했던 사람들이 아니다. 그들은 국가의 필요한 모든 재원을 마련해주는 모범 시민으로서 각자 제자도의 삶을 실천하였기에 도덕적으로도 결함이 없었으며 나라의 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그들이 지키지 않았던 한 가지가 있었다면 그것은 자기들을 방어하기 위해 무기를 들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그 이유는 평화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왕국, 순결한 교회를 위한 싸움에서 당신의 삶, 죽음, 부활로써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이다. 아나뱁티스트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교회가 이 땅에서 폭력을 사용해서 치러야 할 전쟁이 있다고 보지 않았다. 그들은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리라"사2:4는 말씀의 성취를 믿은 사람들이었다.

아나뱁티스트가 칼을 언급했을 때는 오직 자신들이 "칼"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는 사실을 이야기했을 뿐이다. 무기는 그것을 사용하겠다고 마음먹은 사람들만이 사용할 수

있었다. 그들이 전쟁을 생각했을 때는 정치적인 용어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뜻에서의 영적인 전쟁을 의미한 것이었다. 그래서 아나뱁티스트가 바랐던 것은 국가나 교회가 종교적인 이유로 다른 사람의 행동을 바로잡고자 한다면 그것은 폭력이 아닌 평화적인 방법이어야 했다. 펠릭스 만쯔Felix Mantz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사랑이지 폭력이 아니다. 사랑을 보여주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결코 설 수가 없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랑은 원수를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상속자들이라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처럼 우리도 자비로워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아나뱁티스트센터(KAC)는 올해로 창립 11주년이 되었다.
.(KAC의 홈페이지 www.kac.or.kr)

한국에서 아나뱁티스트 신학을 적용하는데 가장 어렵게 느끼는 부분은 아마도 비폭력과 평화에 대한 문제일 것이다. 특히 신앙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와 전쟁 반대 입장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한국 교회들이 정부의 정책을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초대교회 신자들이 원수 사랑에 대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서 전쟁에 대한 연구를 중지했고 비폭력과 평화에 대한 입장을 고수했다는 사실을 상기한다면 오늘날의 현대교회가 추구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실천에 대해서도 본받아야 할 것이다. 아나뱁티스트 운동이 긍정적으로 평가받는 이유 한 가지는 그들이 처음부터 평화교회의 정체성을 추구하며 살아왔기 때문이다. 우리 한국 교회가 통일을 바라보며 관계 회복을 통한 성장을 기대한다면 평화교회로 가는 여정은 반드시 올 것이라고 믿는다.

5) 교회에 주신 사명에 대하여….

아나뱁티스트에게 비폭력 무저항은 단순히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것 그 이상을 의미한다.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에 바탕을 둔 것으로써 모든 인간관계에 통용되는 원리였다. 이웃 사랑은 원수까지도 포함한다. 원수가 정신적 또는 신체적 폭력을 가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은 인내로써 온유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지녀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아나뱁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사명을 국가의 할 일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교회가 악을 이기는 방법은 오직 비폭력과 평화, 즉 선으로 악을 이기는 길 뿐이다

티스트 신자들이 세속 정부조차도 폭력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 것은 아니다. 그들은 로마서 13장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정부에게 무력 사용을 승인한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왕국과 세상의 왕국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아나뱁티스트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교회가 아닌 세속 정부의 손에 넘겨 주신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므로 세속 정부가 폭력을 사용할 수 있게 하나님에게 허락받은 근거는 폭력을 사용해서라도 1) 악을 제어하고 2)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함이었다. 세속 정부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 현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폭력 사용을 허락받은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는 폭력을 사용해서라도 국가의 고유 기능을 유지해야 하겠지만, 그리스도의 순결한 교회를 중심으로 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그런 세상의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사명을 국가의 할 일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교회가 악을 이기는 방법은 오직 비폭력과 평화, 즉 선으로 악을 이기는 길 뿐이다.

6) 치리 방법의 차이에 대하여….

교회와 국가의 치리 방법상의 차이가 있다. 교회의 치리 방법은 세속적인 정부나 국가교회가 해왔던 방식처럼 강제적으로 폭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비폭력, 평화적인 방법이어야 한다.마18장 이것은 나아가서 아나뱁티스트 교회의 평화적 갈등해결을 위한 기본 지침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국가교회의 문제/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은 성경적이지 않다. 왜냐하면, 국가교회의 교회론 자체가 성경에 기초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교회의 새로운 멤버가 된다거나 아니면 교인의 자격을 박탈할 필요가 있을 때 국가 교회는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아닌 강제적, 폭력적 방법을 사용한다.

국가교회가 사용했던 합법적 치리 방법은 주로 수감, 고문, 처형 등이었다. 그 이유는 중세사회에서 모든 사람이 크리스천을 간주 되었기 때문에 같은 땅에서 이단으로 몰린 아나뱁티스트가 국가 교회의 신자들과 공존해서 사는 것은 국가 교회로서는 불가능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아주 고집스러운 이단들을 없애는 방법은 그들을 교회로부터 끌어내어 제거하는(죽이는) 방법뿐이었다. 결국, 이단의 누명을 쓴 아나뱁티스트 신자들은 이런 논리에 의해서 희생당하고 말았다.

결 론

오늘날 한국교회가 더는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많은 사람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존경하기보다는 비판하고 정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세상의 어느 교회가 개혁을 외치지 않고 교회의 순수성을 원하지 않는 교회가 어디 있겠는가? 지금 우리가 당면한 문제는 교회가 부족해서도 아니고 교인이 없어서도 아니고 교리적 가르침이 약해서도 아니다. 과연 우리에게 부족한 2% 아니 그 이상이 있다면 무엇일까?

> "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라. 멸망에 이르는 문은 크고 또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가는 사람이 많지만, 생명에 이르는 문은 좁고 또 그 길이 험해서 그리로 찾아드는 사람이 적다."마7:13-14

16세기 아나뱁티스트 운동을 통해서 발견한 교회의 본질은 그것이 "진정으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소수 사람의 교제를 의미한다는 사실이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로 가는 생명에 이르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험해서 그리로 찾아드는 사람이 적다고 말씀하셨다. 우리가 만일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사람이라면 우리 앞에 놓인 크고 넓은 길을 갈 생각하지 말자. 그 길이 멀고 험해도 제자로서의 삶을 끝까지 살겠다고 날마다 다짐, 또 다짐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로 향하는 좁은 길을 걸어가자.

오늘날 우리는 초대교회나 16세기 아나뱁티스트처럼 박해를 경험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사실 박해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이 땅에서의 안락하고 편안한 삶이 아닌가 싶다. 이 땅에서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며 사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걸림돌이 된다면 차라리 박해를 받더라도 가난하게 살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크신 은혜와 평화를 누리며 살자.

이 땅의 완벽한 교회는 없다. 모든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갈 뿐이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각기 다른 은사를 주셨듯이 각기 다른 교단, 교파의 전통과 유산을 허락하셨다. 나는 각각의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 서로 가진 퍼즐 조각을 내어 놓고 함께 맞추는 일과도 같다고 생각한다. 한국교회가 모든 퍼즐 조각을 다 갖고 있지 않은 것을 인정한다면, 그래서 아나뱁티스트 교회가 유산으로 물려받은 퍼즐 조각을 갖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림을 함께 맞춰간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상상을 한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 중 하나가 바로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라는 말씀이 아니셨던가? 그렇게만 생각하면 한국교회의 갱신과 회복을 위해서 소수인 아나뱁티스트 신앙이 이바지할 바가 분명히 있다고 본다. 만일 모든 사람이 그러한 사실에 동의하고 또 자신을 열어놓기만 한다면 이제부터는 그 잃어버린 퍼즐 조각들을 잘 찾아서 함께 맞추는 일만 남아있다. 우리는 아나뱁티스트 신앙의 유산에서 그 퍼즐 조각을 찾을 수 있다. 이 땅의 모든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합당한 삶에 참여하기 위해서 중간의 막힌 담을 제거하고 서로 하나가 되는 여정에 동참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

이글은 "기독교사상" 643호에 실었던 것을 재편집한 것입니다.

KAF Books

성경적 관점의 일과 쉼 | Work and Rest

왈드 마 잔젠 | 김복기 옮김 | KAP

만약 개인이나 사회생활 속에서 일과 쉼의 패턴이 균형을 이루지 못한다면 건강과 행복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불균형의 패턴이 개인과 그룹들 속에서 발견된다면, 이것은 사회적 부조리 및 불의라는 매우 음울한 모습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일과 쉼은 모두 인간 존재를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를 거부하는 모습으로 변할 것이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일과 쉼에 대한 선하신 계획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것이 될 것이다. 따라서 크리스천들은 일과 쉼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에 늘 관심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러한 필요가 수만은 다른 나라들의 경제적인 상황 속에 급속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 책은 이러한 영역에서 적용할 수 있는 묵상자료로서 일과 쉼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 및 기독교적인 입장, 그리고 일과 쉼을 존중하면서 좀 더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방법들을 찾도록 도와 줄 것이다

제자도, 그리스도인의 정치적 책임 | Discipleship as Politic al Responsibility

존 하워드 요더 지음 | 김기현 옮김

... 교회에게 주신 명령이 정부에게 주신 그것보다도 우선한다는 요더의 주장을 오늘날의 현실에 적용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의 설명을 주의깊이 살펴보기를 바란다. 존 하워드 요더가 우리에게 가르치려는 것을 받아들이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글을 인내심을 갖고 읽고 또 읽어야 한다. 요더는 지금껏 우리가 말하고 글로 써왔던 방식과는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쓰는 훈련을 통해서 기존과는 좀 다른 관점에서 생각하기를 바라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구할 수 있는 한 요더의 다른 모든 책들을 읽을 필요가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제자도, 그리스도인의 정치적 책임]에 대해서 알아야 할 중요한 이유다" – 스탠리 하우어워스

평화를 향한 한국 아나뱁티스트의 자세

박성열
(편집장)

성경에는 평화에 대한 수 많은 언급이 있습니다. 그만큼 평화는 인간의 삶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반증일 것이며, 하나님께서 얼마나 평화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지를 나타내는 증거일 것입니다. 그 양뿐만이 아니라 성경의 핵심적인 주제가 평화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심적인 위치에 평화가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시다"엡2:14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화는 성경에서 획일적이고 단순 명료하게 그리지 않습니다.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용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이나 한국어 성경은 이런 여러 가지 다른 상황을 다른 용어들로 친절하게 번역해 주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의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평화에 대한 수많은 주제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평화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변화됨에 따라, 또한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틀의 변화에 따라 우리는 더 넓고 깊은 성경의 평화에 대한 이해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한 예로 16세기의 아나뱁티스트들과 우리들의 평화에 대한 이해는 그 상황의 변화만큼이나 많이 다를 것입니다.

평화에 대한 성경의 진술을 모두 살펴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평화에 대한 개괄적 이해가 없이는 성경의 내용을 삶에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저명한 구약교수인 월터 브루지만 교수가 말하는 성경의 두 핵심에 대한 이해와 제가 공부한 곳의 신약 교수인 톰 요더 뉴펠트 교수의 평화의 두 축에 대한 이해를 먼저 간단히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브루지만 교수의 강연은 평화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아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뉴펠트 교수가 말하는 평화의 두 축과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 함께 설명을 하며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 무엇인지 이해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국 아나밥티스트로서 필요한 제3의 요소는 무엇인지 위의 두 분이 함께 나누지 못한 부분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저는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심적인 위치에 평화가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두 축 : 거룩함과 관대함

브루지만 교수는 현대교회를 향한 성경의 두 핵심적 축을 독특성과 불안 없는 engagement 즉 거룩함과 관대함이라는 단어로 함축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1] 교회는 하나님의 뜻과 그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찬양하며 순종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레19:2), 거룩함을 추구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 교회가 가진 핵심 사명입니다. 이것이 토라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밝히는 것입니다.

시나이 계약은 이러한 정체성의 특성을 분명하게 드러내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해방과 안녕well-being이 일회적 사건에 그치지 않고 구조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대안으로 자리 잡도록 시나이 계약을 제시하셨습니다. 시나이 계약, 즉 십계명은 하나님의 해방과 안녕이 장기적으로 사회 속에서 실천될 수 있는 사회로의 변화를 위한 하나님의 대안이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하나님께서는 인간 사회의 관계를 재조정함으로써 이루려고 하셨습니다. 그 원리는 근심과 축적이라는 '바로' 적 대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함과 관대함에 기반을 둔 안전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안전은 형제 · 자매에 의한 사회적 안전망에 의해 유지되며 이를 위해 우리의 관계를 재조정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들의 경제적 활동과 잉여물은 인간을 소외시키는 축적의 대상이 아니라 공동체를 섬기기 위한 도구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거룩한 백성은 또한 사회적 윤리가 요구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돌보도록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이런 독특성을 자기 정체성으로 간직합니다.

신명기 7:7-8절에 의하면 이스라엘의 선택은 하나님의 사랑에 기인한 것이지 이스라엘의 어떤 장점 때문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회를 만들도록 순종하고 매진하라고 요구하십니다. 거룩함은 날마다 삶 속에서 세상의 흐름을 거부하는 독특한 삶을 살도록 요청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로 하여금 분리된 제사장의 삶을 살도록 요구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세상에서 구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무분별한 선별의식은 그렇지 않은 이들에 대한 폭력으로 드러날 수 있다는 것 또한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거룩함이라는 독특한 정체성과 더불어 우리의 정체성을 부인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환대하며 공존할 수 있는 이유가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 이유는 1) 하나님은 세상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창9:15-16; 사54:9-10). 2) 하나님은 그의 택하신 백성을 통해 온 민족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기 원하십니다. 그의 백성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창12:1-3) 3) 성경은 다른 사람들의 존재를 인정하며 예배에 참여하는 것에 열려 있습니다.(신2:8-19; 사56장, 그러나 신명기 23장은 이와 반대됨). 4) 다른

예수 안에서 거룩함을 파괴하는 것은 물질적 오염이 아니라 이웃됨의 왜곡에 있습니다.

민족도 출애굽의 기적을 이스라엘과 공유합니다.(암9:7). 5) 하나님께서 이집트와 앗시리아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축복하십니다.(사19:23-25). 6) 하나님은 모든 이의 하나님이십니다.(사 42:6-7; 49:6). 하나님은 모든 이의 안녕과 안전에 뜻을 두고 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다른 민족을 중요한 타자로 인식하게 합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제 이스라엘의 안전과 타민족의 안전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타자에 대한 새로운 인식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또 다른 측면에서의 거룩함을 발견하게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경쟁 없는 안정된 관계 맺음은 선물이며, 가능성이며, 자원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은 신약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되는데, 신약적 거룩함이란 불안 없이 타자와 관계를 맺는 것으로 설명됩니다. 예수 안에서 거룩함을 파괴하는 것은 물질적 오염이 아니라 이웃됨의 왜곡에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웃됨 안에서의 거룩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미6:8). 이 모든 것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만 실천될 수 있는 것입니다. 브루지만에 의하면 타인과 불안 없이 맺는 이 거룩함은 관대함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과 관용은 둘이 아닌 하나로 드러나는데 이는 타인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하나님을 닮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은 하나님의 거룩이며 자비며 완전하심입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들은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으로 이 일을 실천합니다. 거룩은 우리가 누군가를 상기시켜주고 관용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참여케 합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거룩은 커다란 위험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와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정체성을 잃지 않는 타인과의 관계 맺음은 초대교회의 삶이었으며 오늘 우리들의 교회가 추구해야 할 비전입니다.

평화의 두 축: 저항과 무저항

뉴펠트 교수는 평화의 두 축을 저항Resistance과 무저항Nonresistance의 두 단어로 요약합니다.[2] 성경은 악에 저항하는 수많은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출애굽 14:13-14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십니다. 로마서 16:20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사탄을 쳐부숩니다.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 속에서 악을 정복하는 하나님 나라를 갈망합니다. 부활을 통해 주님께서는 죽음을 정복하시고 악을 정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은 악을 정복하도록 그의 제자들을 파송

하십니다.(마10장; 눅10장). 우리 그리스도의 추종자들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 반열에 참여합니다.

성경의 또한 축은 무저항입니다. 고난받는 종의 노래가 대표적일 것이며, 그리스도는 무저항의 표본이십니다.(벧전 2:21-25) 이러한 무저항의 대표적 언어는 고통일 것입니다. 그러나 고통의 원인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고통은 죄로 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불의에 의해 당하는 고통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그날을 고대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또 다른 측면의 고통이 있습니다. 그것은 평화에 대한 완고함이 가져오는 핍박입니다.(마5:10-12)

그리스도께서 그의 추종자에게 고통받는 무저항으로 초대하십니다. 왜냐하면, 무저항은 그 자체로 악과 죄, 폭력과 억압에 대한 신적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무저항의 고통은 하나님을 닮는 또 다른 방법이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딸들과 아들들에게 이를 본받도록 초대하십니다.

무저항은 인내를 동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순종의 자녀가 거룩한 빛의 자녀가 되기를 고대하며 기다리십니다.(벧후3:8-9) 은혜를 받은 과거의 진노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아 원수도 사랑합니다.(고후4:7-11) 이러한 무저항은 그 자체로 복음적이며 복음주의적인 태도입니다. 우리의 무저항 인내는 바로 모든 이가 주님께 나오기를 고대하는 가운데 있는 인내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처럼 고통은 희생 그 자체로 해방을 가져다줍니다.(고전1:17-31) 십자가 그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거룩함이며 평화를 향한 무저항의 정신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진리로 타자와 관계를 맺으며 관용을 베풀고 악에 저항합니다.

교회가 어떻게 무저항의 공동체로 희망 가운데 인내할 수 있는 품성을 개발할 수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 그리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사랑의 경험이 그 뿌리에 놓여 있어야 합니다.(롬5:3-5) 우리의 은혜 경험은 원수를 향한 사랑으로 짝을 이루어야 합니다. 둘째, 복음을 다시 배워야 합니다. 예수를 다시 배워야 합니다.(엡4:20-21) 복음적 인내, 무저항, 저항의 평화 문화가 함께 피어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배움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일은 개인적인 배움이 아니라 복음에 의해 형성된 문화적 기풍이 있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저항의 기풍을 에베소서 6:10-20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사와 권세에 관한 것입니다. 뉴펠트 교수는 진실 말하기를 저항의 한 형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우리와 세상의 죄에 관한 것을 폭로하는 것도 포함합니다. 그러나 진실을 말하는 것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

기하는 것도 포함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시는 대로 현실을 드러내는 것 또한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요소를 은혜와 사랑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넣고 싶습니다. 뉴펠트 교수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고통 속에서 인내하며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은혜 받은 경험만이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경험 없는 자에게 고통과 인내, 용서는 감당할 수 없는 짐일 뿐입니다. 진리의 투쟁은 사랑 안에서만 가능합니다.(엡4:15) 사랑 없는 진리는 사람을 파괴할 따름입니다. 사랑의 확인 없는 충고는 상처와 오해로 우리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위의 두 분의 이야기 속에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거룩함이며 평화를 향한 무저항의 정신입니다. 무저항의 정신은 세상에 존재하는 그리스도인의 독특성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진리로 타자와 관계를 맺으며 관용을 베풀고 악에 저항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이 용서와 포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신구약 성경의 핵심적 이야기는 그리스도에 의해 드러난 평화의 정신이 그리스도의 몸인 그의 제자들을 통해 세상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두 정신은 한국인에게 낯선 것이 아니라 생각됩니다.

한국사람에게 고통과 진실은 익숙한 단어이며 큰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한' 이라는 용어는 그 고통과 인내의 크기를 잘 나타내 줍니다. 또한, 제가 다니던 교회에는 사우디에 일했던 경험이 있는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분께서 말씀하시길 다른 나라 사람들은 다 휴식을 할 때에도 한국사람들은 40도가 넘는 뙤약볕에서 일하는 인내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한국인들은 동토의 땅 중앙아시아에 맨몸으로 던져졌어도 이겨내는 힘이 있습니다. 알래스카의 얼어붙은 땅에도 한국인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 어머니들은 인내와 사랑의 상징이라고 생각됩니다. 세계 곳곳에 한국 선교사가 없는 곳이 없다고 하는데 인내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한국인은 정말 인내와 끈기가 대단한 민족입니다.

우리는 진리에 대한 강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끝장 토론을 원합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명확한 선택을 원합니다. 인정에 의해 왜곡되기도 하지만 진리를 찾는 힘이 어두운 과거를 극복하는 힘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인내와 고통을 통해 진리를 성취하고자 하는 대한민국에 많은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 사회의 문제뿐 아니라 많은 교회가 공통으로 가지는 문제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평화의 다른 한 측면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의사소통의 능력입니다. 의사소통은 개인적 능력이 중요한 것도 사실이지만 시스템의 개발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어려서부터의 교육

도 중요합니다.

아쉬운 것이 있다면 한국의 수많은 성령 운동이 은혜와 사랑 그리고 파워만을 강조하는데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바로 의사소통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오순절의 언어 능력뿐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교통함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아나뱁티스트의 과제 : 의사소통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려고 그래서 평화를 증진하기 위해 저는 한국 아나밥티스트 지도자들에게 주어진 세 가지 실천 목표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모든 이에게 균등한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고르게 자신의 목소리를 낼 기회를 주십시오(.행15장) 목소리 그 자체가 파워입니다. 자신의 의견이 채택되건 되지 않건 자신의 의견이 표현되는 것 자체가 이미 그 존재의 의미와 가치/파워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소리가 작을 수도 있지만 분명한 기회를 주고 스스로 선택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의 의사를 물으십시오.아이들에게도 절대 수동적인 희생자 상태로 남아 있도록 용납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선택인 것을 확인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개개인의 가치와 성령의 내주 하심이 주는 권세를 활용케 하십시오. 자기의 의견을 때론 희생하더라도 지도자나 대세에 의한 것이 아니라 결국 자신의 선택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도록 도우십시오. 이 일을 위해 자신을 뒤돌아보고 자신의 생각을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저는 침례교회를 출석했었기 때문에 교회 문제를 결정하는 일에 대해 장로교회 출신이신 분들과 다른 경험이 있습니다. 침례교회는 위원회가 있고 제직회라고 하여 침례받은 모든 이가 참여하여 교회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민주적 절차를 밟습니다. 이러한 긍정적 정신 속에서도 침례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두 가지 문제의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모든 사람이 너무 목소리를 내다보니 질서가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담임 목사님께서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형식은 민주주의지만 내용은 성도들이 거수기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원인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누구나 마이크를 잡을 수 있으나 확실히 마이크 잡고 계신 분은 담임목회자였다는 것입니다. 현대처럼 말과 설득이 중요한 사회에서 마이크는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누가 마이크의 주도권을 가지고 대중을 설득할 기회를 많이 얻느냐가 중요하며 또 그래서 파워 남용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 아나밥티스트 교회는 마이크를 돌릴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파워를 가질 수 있는 교회, 모든 존재가 인정되는 교회, 성도들이 교회 성장의 도구나 거수기가 아닌 능동적 주체로 표현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평신도 교회는 목회자가 없다고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힘을 가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큰 교회는 우리에게 늘 질문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작지만 독재적 교회보다 더 의사소통이 원활할 수 있습니다)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균등한 기회, 공간의 제공, 관계의 증진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공간의 창조입니다. 모두에게 기회를 준다고 모든 사람이 자신의 의견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같은 기회를 줘도 더 그럴듯하게 말하는 사람의 이야기에 더 많은 지지를 보내게 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노력해야 할 것은 대화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를 통하여 대화가 일어나는 공간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세는 마음마저 들으려는 능동적 듣기의 자세와 창조적으로 반응하려는 자세를 취하는 것입니다.

첫째, 능동적 듣기의 자세를 취하며 상대의 이야기에 참여해야 합니다. 어떤 분은 compassionate listening이라고도 합니다. 상대의 언어가 아닌 그 뒤에 웅크리고 발견되기를 원하는 진실을 찾는 훈련입니다. 사람은 능력에 따라 자신을 잘 표현하는 이가 있고 그렇지 않은 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을 잘한다고 그 사람의 진실이 언제나 드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언어 수사에 속아 그 사람의 진실한 마음이 무엇인지 놓치기 쉽습니다. 우리는 표현의 수사뿐 아니라 수사 너머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글의 행간에 숨어 있는 글쓴이의 의도를 파악해야 하듯이, 언어 뒤에 숨어 있는 진정한 외침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참된 마음(히10:22)이 필요합니다. 참된 마음은 겉의 화려함을 극복하고 그 말이 가진 진정성과 진실을 경험하는 힘을 갖게 합니다.

둘째, 상대가 자유롭게 말할 수 있도록 창조적으로 반응하는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이야기를 할 때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기 어렵게 만드는 곳이 있습니다. 상대가 방어적인 마음의 자세를 취하는 곳,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는 곳, 초월적인 자세를 취하는 곳이 그곳입니다. 방어와 공격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무언가 저에게 불편한 이야기를 할 때 나를 공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를 방어하고 또 상대를 공격함으로 나 자신을 방어하려고 합니다. 초월적일 때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나의 문제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항상 그 안에 나를 가두고 판단하며 듣는 것입니다. 또는 나의 모든 이야기를 경험으로 책으로, 생각으로 먼저 알고 있다는 태도입니다.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하는 사람에게 그것만큼 김빠지게 하는 태도는 없을 것입니다. 상대가 다 아는 이야기를 내가 굳이 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비록 다 아는 이야기라도 듣는 자 안에서 창의적 질문으로 새롭게 공명할 때, 그때 말하는 사람은 말할 맛이 난다고

평화를 위한 가장 값진 태도는 유기적이고 역동적인 창조성에 있으며, 이러한 평화공동체의 유산을 물려줘야…

생각합니다. 새로운 마음, 호기심 어린 마음으로 이야기를 들읍시다 (요3, 4장). 우리의 반응이 한 사람의 대화의 폭을 깊고 넓게도 할 수 있고 좁고 얕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너무 상식적이지만 관계를 증진시켜야 합니다. 서로 알지 못하고는 결코 극복할 수 없습니다. 각자의 그림판을 서로 이해해야 합니다. 만나지 않고 표현하지 않고 이해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바벨탑 사건으로 우리에게 언어의 혼동과 의사소통의 혼동이 온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벨탑 사건은 단지 언어의 혼동만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문화와 세계관으로 서로 이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야기 신학자들의 말로 한다면 우리는 서로 다른 그림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그림판은 같은 언어 속에서도 다른 경험을 불러 일으키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 아버지라는 단어를 들을 때 매일 술에 절어 호통치시는 아버지를 경험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자상하고 지혜를 주시던 아버지를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들의 사고체계에는 서로 다른 그림들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이 그림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작업 없이 원활한 의사소통은 중대한 난관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대표적이 예가 제가 아는 목사님과의 대화일 것입니다. 신앙인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무엇입니까? 아니, 예수님의 지상 명령은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실현입니까? 평화입니까? 저는 우리의 근본적 정체성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장에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이 주는 허무함 때문에 이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도대체 어떤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제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리스도가 정말 같은 분입니까? 가끔은 어떤 분들과는 너무도 달라 합의점을 찾기가 힘이 듭니다. 대표적 예가 이슬람교가 생각하는 예수상일 것입니다. 이슬람은 종교가 다르기 때문이라 하실지 모르나 기독교 안에서도 공통분모보다 차이점이 큰 분들도 있습니다.

교회의 구성원들이 자신의 그림판을 이해하고 대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도전은 우리는 단지 우리의 생각을 나눔으로 우리의 그림판을 맞추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한 그림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으로 같은 그림판을 그린다고 하면 같은 문제에 빠지고 맙니다. 같은 성경이 있어도 해석은 천차만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석의 틀로 아나밥티스트의 틀을 이용하여 성경의 그림판을 우리의 것으로 몸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데 아나뱁티스트라는 재단사의 패턴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이를 배우고 익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그림판을 서로 확

인하고 새로운 그림판과의 대화 속에서 우리의 것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평화 공동체의 유산을 물려주고자

오늘 우리가 추구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평화는 무저항(거룩함), 저항(관대함, 관여), 의사소통 혹은 사랑, 은혜, 교통이라는 세 개의 기둥이 역동적으로 상호 작용할 때 이뤄지는 소산물입니다. 평화는 절대 단편적이거나 정형화된 답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일시에 이루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화를 추구하는 공동체를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부름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통해 연속성을 가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한 세대 두세 대 수많은 후세가 우리의 삶에 의해 다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뿌리는 역할로 혹은 밭을 가는 역할로 우리의 소임에 온 힘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역사의식을 가지고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들의 삶은 공시적인 연관성뿐만이 아니라 통시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물려줄 것은 어떤 아이디어나 기관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평화를 위한 가장 값진 태도는 유기적이고 역동적인 창조성에 있습니다. 유기적이라 함은 뿌리인 성경과의 연속성입니다. 역동적이라 함은 주변과의 의사소통일 것입니다. 창조성이라 함은 그 상호 역동속에서 생겨나는 창조적인 반응입니다.

아나밥티스트는 위대한 유산을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역사가 항상 위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새롭게 태어나지 않고 과거를 먹고 사는 자들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다시 뒤돌아 보고 새롭게 도전하는 반성의 능력을 물려줌으로써 과거의 화석이 아닌 현재의 비전으로 살아가는 유산을 후대에 물려주기를 소망합니다.

---

1) Brueggemann, Water. "Vision for a new church and a new century. Pt I, homework against scarcity," Union Seminary Quarterly Review 54 no 1-2 2000,p 21-39.
"Vision for a new church and a new century. Pt II, holiness become generosity," Union Seminary Quarterly Review 54 no 1-2 2000, p 45-64.

2) Neufeld, Thomas R. "Resistance and nonresistance: the two legs of a biblical peace stance," Conrad Grebel Review 21 no 1 Wint 2003, p 56-81.

예수촌 교회의 역사와 비전

성경적 교회의 회복을 위한 모임;

차성도
(예수촌 교회 리더)

왜곡된 교회를 아파하는 춘천의 형제들이 모여 '성경적 교회의 회복을 위한 모임' 성회모을 1993년 봄부터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몇몇 형제들이 폴 스티븐스의 '참으로 해방된 평신도'를 읽고 한번 만나서 나누기로 하였다. 그러나 이 책을 통해 각자 배운 바를 나누는 중에 성령께서 성경이 말하는 교회를 찾는 모임을 지속적으로 해야겠다는 마음을 동일하게 주셨다. 모임이 진행되면서 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는 교회에 있으며, 교회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원래 디자인하시고 원하셨던 교회의 모습을 잃은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교회를 찾는 것을 최우선적인 과제로 정하고, 매주 목요일마다 교회론 성경연구와 더불어 교회의 회복을 위한 기도가 진행되었다. 각자가 경험한 교회를 토대로 자기 나름대로 공고하게 굳어진 교회에 대한 선입관과 신학이라는 색안경에 가려서 성경이 말하는 교회를 제대로 보기가 쉽지 않았다. 신앙의 선배들이 교회에 대해 밝혀놓은 서적들은 이러한 색안경을 제거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1993년 가을에는 사랑의 봉사단 사무실에서 성회모 서울모임이 시작되었으며, 1995년부터는 자매들이 모임에 합세하면서 더욱 활기차게 진행되었다.

16세기 아나뱁티스트재세례신자와의 만남

성경이 말하는 교회를 찾는 일환으로 교회사에 나타난 다양한 교회들을 살피던 중, 목숨도 불사하며 성경적 교회 되기를 서슴지 않았던 무리를 발견하게 되었다. 그들은 16세기의 아나뱁티스트들로 신약교회의 원리대로 살고자 순교도 마다하지 않았다. 대부분의 한국 교회들이 개혁교회의 전통 속에 있었으므로 아나뱁티스트신앙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왜곡된 지식을 갖고 있었기에 16세기의 아나뱁티스트와의 만남은 충격적이었다. 신약교회의 원리를 찾아가던 도상에서 만난 대선배인 아나뱁티스트들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다. 16세기의 아나뱁티스트들이 소중한 것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대상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도 우리와 같이 신약교회를 추구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우리는 책에서 만난 16세기의 아나뱁티스트들에게서 아나뱁티스트신앙를 배웠기에 다소 이상적인 면이 있지만, 이것 때문에 순수한 아나뱁티스트신앙을 추구해야 한다는 거룩한 부담을 갖게 되었다.

예수촌교회의 시작

'성회모'를 통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신약교회의 원리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세 가지 의견들–각자의 교회에 적용하자는 우파, 상황이 허락될 때까지 기다리자는 중도파, 깨달은 만큼 순종하여 교회를 시작하자는 좌파–가 있었다. 어떤 의견을 따라야 할지 분분하던 차에 지면상 다 밝힐 수 없는 긴박한 상황들이 연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성회모의 지체들은 금식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릴 수밖에 없었다. 긴박한 상황을 통해 절박한 기도로 몰고 가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발견한 것을 무조건 순종하라는 마음을 모두에게 강권적으로 부어주셨다. 이에 1996년 첫째 주일인 1월 7일 춘천의 한 아파트에서 하나님께 감격스런 예배를 드림으로써 예수촌교회는 첫발을 내디뎠다. 가정교회로 모이면서 '성회모'를 통해 배웠던 것들을 몸으로 경험하게 되었다. 교회의 성경적 정의인 '그리스도의 몸'의 특성인 공동체성을 교회의 모든 영역에서 드러나도록 조금씩 적용해나갔다. 예수촌교회의 초창기에는 교회건물도 없이 가정에서 주일예배를 드리고 담임목사제가 없고 교단에 속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단이라는 소문이 끊이질 않았다. 이로 말미암아 매주일 눈물로 범벅되고 성령의 위로 하심이 함께하는 간절한 예배가 드려졌다. 지금도 지체들의 기쁨과 슬픔이 가슴으로 절절히 느껴지는 가정에서 드렸던 주일예배의 감격을 잊을 수가 없다. 오랜 교회생활을 통해 체득된 관습에서 쉽사리 자유로울 수가 없었고, 신약교회에 대한 이해의 폭과 방향이 조금씩 달랐어도 이러한 감격스런 예배가 있었기에 예수촌은 자라나 갔다. 예수촌의 가족들이 늘어나면서 1997년에는 열린유치원에서, 1998년에는 춘천 IVF회관에서, 그리고 1999년부터 후평동의 건물을 임대하여 주일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가정교회로 시작된 예수촌

한국 최초의 자생적 아나뱁티스트 교회가 우리 곁에 있다.
예수촌교회 홈페이지 www.jvchurch.onmam.com)

교회는 기존 틀에 얽매이지 않으려고 어느 교단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교회이며, 같은 방향을 추구하는 교회들과의 교제와 법적인 지위를 위해 2000년에 한국독립교회협의회의 회원교회가 되었다.

아나뱁티스트들과의 교제

예수촌교회가 시작되면서 한국사회에 반드시 이바지해야 할 것은 평화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혹독한 전쟁을 경험한 한국인들은 평화를 실천하기는커녕 이해하기도 쉽지 않다. 또한, 교회의 공동체성과 제자도 역시 한국교회가 회복해야 할 중요한 주제였다. 이에 아나뱁티스트교회에서 평화, 공동체, 제자도를 배우고 나누고자 북미의 메노나이트교회에 Korea Anabaptist Center(KAC)를 제안하였다. 예수촌교회와 메노나이트교회가 함께 협력하여 2001년에 KAC 사역이 서울에서 시작되었다. 이것을 계기로 메노나이트들과의 교제가 더욱 활발해져서 예수촌교회는 2003년에 Mennonite World Conference의 준회원이 되었다. 예수촌교회와 메노나이트교회의 관계는 활발한 인적 교류를 통해 더욱 깊어졌다. CMBC를 갓 졸업한 신혼부부였던 크리스와 로라(Kriss & Lora Mullet Koop)는 예수촌교회의 초장기인 1997년부터 1년간 함께하며 젊은 활력을 불어넣었다. 캐나다 윈저에서 목회하시던 어윈과 매리언(Erwin & Marian Wiens)은 예수촌교회의 도약기인 2002년부터 2년 반을 함께하며 아나뱁티스트신앙의 본을 삶으로 보여주셨으며, V-School의 정착에 많이 이바지를 하셨다. MCC 자원자로 1957년부터 4년 동안 대구의 고아들을 섬겼던 밥 거버(Robert Gerber)는 노후의 몸으로 프랜(Fran)과 함께 다시 한국을 찾아오셔서 2005년부터 1년 동안 예수촌교회가 단단하게 서도록 섬기셨다. 신혼부부였던 윌과 어나(William & Ana Loewen)는 2007년부터 2년 반을 예수촌교회와 함께하면서 한국 땅에서 딸도 나았으며, 한국의 사역을 마치면서 어윈 목사님이 시무하시던 캘거리의 트리니티 메노나이트교회의 목회자로 초빙되었다. 어윈과 매리언은 KAC의 초청으로 2010년 다시 한국에 오셨으며, 2011년에는 춘천으로 이사 오셔서 예수촌교회의 필요를 채워주셨다. 이와 같은 인적교류는 아나뱁티스트신앙을 배우고 동역하는 가장 좋은 장이 되었을 뿐 아니라

예수촌교회의 역동성을 메노나이트들과 나누는 계기가 되었다.

지나간 시간으로부터의 교훈

예수촌교회는 지난 시간 동안 내외적으로 많은 비판과 도전을 받아왔다. 이단시비와 담임목사제 없는 공동체 교회가 가능하겠냐는 등 외부의 도전도 만만치 않았지만, 책임자가 없어 허술하고, 카리스마적인 리더십과 설교의 전문성이 부족하고, 사람들을 돌보지 않으며, 말로만 공동체와 아나뱁티스트신앙을 주장한다는 내부비판의 소리는 더 컸었다. 더욱이 전통으로 굳어진 척박한 토양에서 신약교회로의 회복은 실현하기 어려운 꿈일 거라는 부정적인 시각은 예수촌교회의 발걸음을 막는 듯했다. 그러나 내외적인 거친 풍파에도 불구하고 예수촌교회가 지금까지 존재할 수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가장 큰 기적이자 교훈이다. 하나님의 신비이자 비밀인 그리스도의 몸에는 놀라운 능력이 숨어 있었다. 우리는 게으르고 성실치 못했지만, 그리스도의 몸으로 존재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동안 몸의 신비가 드러나고 힘이 강력하게 작동하기 시작하였다. 예를 들어 전문성이 부족한 여러 사람이 돌아가면서 설교하면 말씀이 약화할 것이라는 비판의 소리가 컸었다. 그러나 아무리 값비싼 스테이크라도 1년 동안 매일 앉아서 먹기만 하면 건강을 외려 해칠 수 있지만, 값싸고 질이 낮아 보이지만 김치찌개, 푸성귀, 보리밥 등을 골고루 먹고 운동할 때 건강해진다. 다시 말해서 신학적 전문성을 가진 한 사람이 일주일에도 몇 번이나 하는 설교보다, 지체들로부터 말씀의 은사가 인정된 여러 말씀 담당자들이 다양한 인생경험과 말씀묵상을 통해 몇 달간 또는 일 년간 정성껏 준비한 말씀이 화려하지는 않지만, 영적으로 건강하게 한다.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가 어떤 구조적 제한 없이 마음껏 발휘되고, 기쁨과 어려움이 한 가족처럼 나누어지는 예수촌 안에서 지체들은 건강하게 성장하였다.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 복음이 흘러나가 새 생명이 태어났으며, 서로 나눔을 통해 갈등이 치유되었고, 은사가 발견되고 발휘되면서 각 사역을 담당하는 지도자들로 성장하게 되었다. 이들이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고 돌보는 목회자의 심령을 갖게 되었고, 다음 세대의 사역자들로 이어지고 있다. 인위적인 교회사역이나 구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교회의 비밀을 체험한 것이 가장 중요한 교훈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

인위적인 교회사역이나 구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교회의 비밀을 체험한 것이 가장 중요한 교훈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

현황과 사역의 특징

예수촌교회에는 현재 80여 명의 지체가 예배에 참여하고 있으며, 5개의 고을cell

예수촌교회의 예배(왼쪽은 성인예배, 오른쪽은 어린이설교)

group에 속하여 매주 가정에 모여 진한 교제를 나누고 있다. 공동체성은 교회의 본질이자 존재양식이기에 교회의 모든 모임과 사역을 통해 나타나야 한다. 가정공동체를 이루고자 예수촌의 핵심구조인 고을모임은 매주 수요일마다 각 가정을 돌아가면서 모이며, 이 모임을 통해서 서로 기쁨과 아픔이 나누어지고 치유된다. 선생은 하나요 모두가 형제라는 주님의 명에 따라 예수촌 가족들은 서로 형제 · 자매라고 부를 뿐 아니라 큰 가정이 되기를 힘쓰고 있다. 리더십의 공동체성을 이루고자 신약교회의 원리를 따라 담임목사제 대신 복수리더십으로 현재 4쌍의 부부가 리더로 교회를 섬기고 있다. 주님의 머리 되심과 화평이 더 높은 가치라고 믿기에 더디고 덜 효과적일지라도 리더들은 만장일치로 교회의 주요 사안들을 정하고 있다. 예배공동체를 이루려고 모든 가족이 함께 예배에 참여하며, 성령의 인도 하심에 따라 순서와 흐름이 열려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지향한다. 격 달로 주일예배를 예배당이 아닌 고을 별로 가정에서 드림으로 다양한 은사가 발견되고 또한 발휘되고 있다. 은사공동체를 이루려고 성경의 만인 제사장 원리대로 누구나 은사에 따라 모든 교회사역에 참여한다. 현재 예수촌에는 10명의 예배인도자, 10명의 어른설교자, 20명의 어린이설교자가 세워졌으며, 앞으로 더 많은 지체가 은사를 따라 사역에 참여할 것이다. 말씀공동체를 이루려고 예수촌의 아이들을 비롯한 모든 지체는 같은 구절로 매일 QT를 하고, 3달마다 QT 예배를 통하여 어린이들을 비롯한 누구라도 주일예배에서 당당히 말씀을 나누고 선포한다. 교육공동체를 이루려고 홈스쿨링 가정들이 더불어 기독교 원안학교인 V-School을 운영하였었고, 새로운 세대들로부터 홈스쿨링 가정들이 다시 일어나고 있다.

예수촌교회의 비전

예수촌의 가족 80여 명은 서로 깊이 교제하기에는 너무 많다는 의견이 2011년부터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왼쪽은 세족식, 오른쪽은 예배의 시작)

대두하였다. 이에 지체들의 중지를 모아 2012년에 준비과정을 거쳐서 2013년에는 분가하려고 추진 중이다. 아직 분가의 방법과 형태가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분가를 원하는 지체들을 중심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뜻이 모이고 있다. 분가하면 각자가 감당해야 할 부담이 많아짐에도 교회의 핵심인 공동체성을 지켜나가고자 분가의 길을 택하였다. 이를 통해 예수촌교회가 시작하면서 비전으로 품었던 CLC(Cell, Local, Celebration Church)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예수촌교회가 체험을 통해 확증한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의 비밀과 능력을 예수촌교회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나눔으로 풀뿌리 신약교회운동이 확장되고 있다. 예수촌교회는 작지만, 신약교회의 원리와 아나뱁티스트신앙을 나눔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회복되고 새로운 교회가 탄생하도록 돕는 것이 모든 교회를 향한 예수촌교회의 비전이자 사명이다.

예수촌교회 침례식

KAF 소식

여러분의 소식을 전해 주세요

스튜어트 머레이 교수 초청 – 2013. 4. 19 ~ 5.3

KAC에서 Naked Anabaptist 의 저자 Stuart Murray 교수님을 내년에 한국에 초청했습니다. 머레이 교수의 책은 『이것이 아나뱁티스트다』(대장간역간) 『아나뱁티스트 성서해석학』(대장간역간 2012년 12월)이 한국에 소개되었습니다.

KAC 창립 11주년 감사예배 및 세미나– 2012. 11. 3

KAC는 창립 11주년을 맞이하여 감사예배 및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KAC "Kingdom builders" 세미나 개최 – 2012. 10.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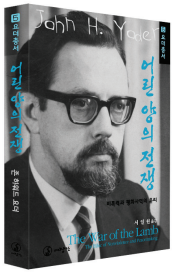
KAC에서는 메노나이트 선교사들(존 랩(John F. Lapp) , 고든 젠슨(Gordon Janzen))을 초청하여 아나뱁티스트 교회의 선교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아나뱁티스트 신앙이 메노나이트 선교에 미친 영향은 무엇인가? 아나뱁티스트 교회가 추구하는 선교의 핵심 요소는 무엇인가? 아나뱁티스트 그리스도인들과 타종교인들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등 메노나이트 선교의 핵심에 대해 나눴습니다.

KAF관련 웹사이트 주소
www.wkaf.net(KAF) www.kac.or.kr(KAC) www.jvchurch.onmam.com(예수촌교회)
www.gracepeace.org(은혜와평화교회) www.dreammaeul.net(꿈이있는교회)
www.narpi.net(NARPI) www.kapbooks.com(KAP) www.daejanggan.org(대장간출판사)

KAF Books

어린 양의 전쟁 | The War of the Lamb

존 H. 요더 | 서일원 옮김 | 대장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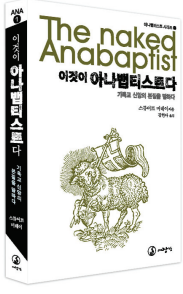
기독교평화주의로 상징되는 존 요더 총서의 7번째 책 「어린 양의 전쟁」은 요더가 펼쳐온 주장들의 결정체이다. 요더는 기독교의 정당한 전쟁과 기독교 평화주의 전통은 기본적으로 모순적이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특별히 그리스도교의 정당한 전쟁과 전통 자체는 모든 폭력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본회퍼연구소 대표인 클리포드 그린은 "놀랄만한 통찰력으로 가득한 최고점에 다다른 요더의 이 책은 교회 공동체의 평화 증언을 위한 모든 기독교의 실천으로 읽으라"며 기독교의 평화 증언에 대해 일독을 권한다.

"단순한 기독교"의 저자인 리 C. 캠프는 "만약 어떤 책이 분명히 사적이며 공적이고, 사회적이며 정치적인 예수가 보여준 성육신의 보복하지 않는 사랑이 가진 선(善)을 증명한다면, 「어린 양의 전쟁」이 바로 그런 책이다. 그리고 만약 어떤 책이 트뢸치, 니버 그리고 그의 제자들에 의하여 우리에게 잘못 인식된-그러한 사랑은 공적으로 무관한 것인데- 틀 속으로 결정적인 일침을 가한다면, 「어린 양의 전쟁」이 바로 그런 책"이라며 이 책의 무게를 설명한다.

이것이 아나뱁티스트다 | The Naked Anabaptist

스튜어트 머레이 | 강현아 옮김 | 대장간



저자는 이 책에서 아나뱁티스트의 장점과 단점을 솔직하고 거리낌 없이 껴내 놓고 대화하기를 원한다. 한국에서도 이들과의 진솔한 대화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새롭게 하는 능력 있는 비전을 만나게 되길 바란다. 이 책은 나면서부터 아나뱁티스트이거나 개종했거나 아나뱁티스트가 될지를 고민하는 자들 모두가 읽어야 할 필독서이다. KAC에서 오래 사역하셨던 어브 윈즈 목사는 "한국에서 많은 그리스도인이 아나뱁티스트의 믿음과 실천을 발견하고 관심을 두는데, 이는 오늘날 한국 교회에 너무 팽배해 있는 기독교국가체제에 대한 의미 있는 대안이라고 믿습니다. 이 책은 예수를 따르는 자들의 급진적 신앙을 탁월하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이 충성스러운 제자가 되려는 한국의 구도자들과 신자들에게 산 위의 빛이 될 것을 소망합니다."라고 추천한다.

침례교와 메노나이트 교단의 이중 멤버십을 가진 최봉기 목사는 "오늘날 사회로부터 지탄받는 한국교회가 누군가로부터 배워야 한다면, 오랜 세월 동안 역사적으로 검증되었으며 현존하는 교회 중 가장 적합한 모범으로 아나뱁티스트를 제시하는 데 나는 주저하지 않는다. 이 책은 모두를 아나

뱁티스트로 초청하는 것이 아니다. 아나뱁티스트는 지나간 역사 속에서도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다만, 각자가 있는 곳에서 그들과 더불어 우리의 중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바라보고 믿고 따르자는 것뿐이다."라며 아나뱁티스트에 대한 이해를 촉구한다.

L.A의 허현 형제도 "아나뱁티스트들이 오늘 기독교국가체제의 긴 그림자 아래서 고통받는 한국교회에 들려주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자"며 추천의 글을 썼다. 고센대학의 존 로스 교수는 "이 책은 메노나이트의 교단적 전통이라는 인종적, 문화적 양식에 가려져 있던 급진적인 아나뱁티즘의 핵심 논제가 무엇인지를 단순하고 명료하게 단점까지도 숨김없이 드러냈다. 아나뱁티스트 전통을 타문화 속에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책"으로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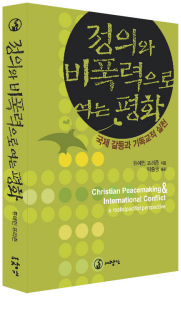
전쟁 평화 무저항 | WAR, PEACE & NON-RESISTANCE

가이 허쉬버그 | 최봉기 옮김 | 대장간

이 책은 우리가 고통 가운데 직면하는 문제들에 대하여 평화를 알고 실천하며 누릴 줄 아는 사람들의 실질적인 경험으로 조명하고 길을 안내한다. 이 책에는 평화를 사랑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메노나이트들의 처절한 몸부림이 빼곡히 담겨져 있으며 그러한 희생적 살밍 오늘날 세계에 끼친 영향력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게한다. 현대 기독교가 잃어버린 평화전통을 이해할 수 있고 진정한 제자로 사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깨닫게 할 책이다.

정의와 비폭력으로 여는 평화 | Christian Peacemaking & International Confkict

듀에인 프리즌 | 박종금 옮김 | 대장간



이 책은 폭력으로 쟁취한 '정의'가 유효한가에 대한 신학적이면서도 사회학적인 자료로 평화로운 세상이 실현가능한 대안 임을 주장한다.

스탠리 하우어워스는 평화주의자 뿐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전쟁을 대안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커다란 도전이 된다며 은연 중에 행하는 폭력을 포함한 타인에게 가하는 많은 폭력을 인식하게 촉구하다며 이 책을 추천한다.

평화가 반드시 정의로 이어지는 길을 제공한다는 메노나이트 전통의 신학적 사회학적 통찰은 교회의 사회참여와 지속적인 행동은 물론 평화와 전쟁억제의 가능성에 대한 갈등 분석과 해결을 제시하며, 특히 교회의 5가지 차원의 행동을 말한다. 그것은 에토스, 예시, 봉사, 정책, 사명이다.

마지막 장에서는 공동체와 운동들 혹은 조직의 관계성을 통해서 지속적이고 영향력있는 활동을 할 수 있는 영적 자원들에 대해서 탁월한 신학적 사회학적 통찰을 보여준다.

Korea Anabaptist Journal

한국아나뱁티스트저널